

청년 일자리 · 정착지원 한 번에

군산시,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수당 등 월 50만원 · 3년 차 인센티브 1000만원

군산시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지원과 동시에 정착 지원으로 청년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행정안전부 전라북도과 함께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신규사업인 '군산의 봄' 조선해양기자재산업 청년일자리사업과 '그린산업육성' 청년일자리사업을 통해 총 39개 기업에 146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 및 지원한다.

지난 10일 시는 베스트웨스턴 군산 호텔에서 2023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협약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청년들의 일자리와 정착지원에 나서게 된다.

이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협

약식은 시와 전북산화융합원 참여기업, 참여청년이 모두 참여해 진행됐으며, △사업 참여 주체별 지위와 역할, △기업 및 청년근로자의 의무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협약 당사자간 상호협력 규정으로 협약이 이뤄졌다.

협약을 통해 참여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게는 2년간 인건비 80%(최대 월 160만원)를 지원한다. 기업은 청년 친화적인 정책 및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인건비 지원 기간 종료 후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청년을 계속 고용해야 한다.

청년에게는 정착수당 및 복지수당을 지원해주고, 인건비 및 수당 지원 종

료 후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규직 유지 또는 지역내 정규직 취업 및 창업(3개월 이내)하여 정착할 경우 분기별로 250만원씩 1년간 총 1,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대표로 협약식에 참여한 (주)선영테크(조선업) 황경은씨는 "학교에서 정규직 일자리 추천이 있었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정착수당 및 복지수당을 지원받아 군산에 정착할 동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기업대표로 참여한 (주)더넥스트(자동차 부품) 이정권 대표는 "군산지역이 인력 구인난에 힘든 상황인데, 이러한 지원사업이 고용창출에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군산=이재훈 기자



익산시가 정부의 청소년 참여 활동 공모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청소년 다(多)이로움 활동’

익산시 '청소년 참여 활동' 공모 3년 연속 선정 쾌거

익산시가 정부의 청소년 참여 활동 공모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시는 농촌지역 청소년까지 활동 범위를 넓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수시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도농복합도시로써 지리적, 문화적 차이, 교육격차 등으로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청소년 지도자들이 농촌지역으로 직접 찾아가는 '청소년 다(多)이로움 활동'을 진행한다.

시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지역사회 청소년참여활동 활성화 사업' 공모에 도내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국비 2천 5백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대구, 대전 등 신규 지자체 11곳을 포함해 익산과 서울 등 연속 선정된 지자체까지 총 15곳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사업은 지역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와 정책에 관심을 갖고 의견 발과 토론, 투표, 실천 활동 등 민주적 참여 과정을 지원해 청소년의 역할을 높이는 사업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자녀 사교육비 부담 덜어준다

다양한 교육지원사업 발굴 · 확대 운영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 · 자기주도 역량 지원 예정

군산시가 기초학력 저하와 소극적자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최근 코로나19가 진정세로 돌아선 시 학원수업이 정상화되고, 고물가·고금리의 영향으로 가계의 부담이 커진 가운데 코로나 대응행 시기 자녀들의 기초학력이 떨어졌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 또한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품 '공부의 명수'를 통해 에듀테크 기반을 활용한 실시간 질의응답과 온라인 튜터 기능을 제공해 학습 중 모르는 문제에 대한 신속한 풀이과정을 제공하고 교과목에 대한 1:1 맞춤형 온라인 학습을 지원한다. 더불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실시간 양방향(화상)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자기주도적 공부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 계획이다.

또한, '비중물(교과목)·희망스터디(특기적성교과목)사업'은 관내 학원과 직접 연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학원비 부담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으며,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미중물스터디 사업의 지원금을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해는 희망스터디사업의 지원금을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확대 지원해 학부모들의 교육비 절감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맞춤형 비교과 컨설팅'을 제공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시정보가 부족한 지방 학생들에게 차별화된 입시체널 및 전형별 정보, 수시 지원자를 위한 다양한 학습전략 등을 폭넓게 제공하여 학력 신장은 물론, 학생들이 희망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군산=이재훈 기자

이에 시는 초·중·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와 소극적자에 따른 교육격차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지원사업 등을 발굴·확대 운영해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 및 자기주도 역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교육플랫폼

을 통해 처음 시행하는 교육플랫폼

익산시 · 지역기관, 세계유산 홍보 협력체계 '강화'

세계유산도시 익산시가 지역에 산재한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기 위해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전대식 부시장은 정권일 국토교통부 국도협력관,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와 함께 지난 10일 호남고속도로 세계유산 홍보 표지판 설치 현장을 방문해 익산의 세계유산 홍보 방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현장을 둘러본 전 부시장은 호남선을 비롯해 시와 인접한 고속도로나 향



후 추진되는 도로에도 홍보 안내판 설치가 필요하다고 적극 건의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익산과 삼례나들목 양방향 1.5KM 전방 4

개소에 세계유산 홍보 표지판을 설치하기로 했다.

그간 호남고속도로 상하행선에서 익산IC로 진입하는 구간에 세계유산인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에 대한 홍보 표지판이 없어 방문객을 유도하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데 어려움이 많았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관계자는 "표지판 디자인이나 위치를 시와 협의하여 상반기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미래 농정 정책자문단 출범

익산시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농정 정책자문단을 출범하고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시는 1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미래 농정 정책자문단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을 개최했다.

미래 농정 정책자문단은 그린바이오, 농식품, 농업법, 동물용의약품, 농촌개발, 친환경유기농업, 농업정책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으며 오는 2025년까지 2년 동안 활동한다.

자문단에는 △이은미 전북그린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권대영 호서대학교 교수 △사동현 흥익대학교 교수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태근 농업법인회사 휴신림 회장 △황만길 군장대학교 교수가 위촉됐다.

이날 첫 회의는 정책자문위원 7명이 참석해 '그린바이오 농업발전 종합계획'에 대한 정부의 산업 육성 전략과 익산 그린바이오 정책 연계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의견을 나눴다.

앞으로 자문단은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정책 추진 전반에 대해 자문하고 대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농업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정부의 농업정책이 선도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